민추본, 정전협정 70주년 '평화기념 대법회' 연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월 28일, 2023 추진 사업계획 발표
6월 임진각 봉행…대북사업 원동력
평화순례길 걷기로 평화메시지 전달
연내 남북불교 교류 대표회담 추진
태효 스님 "남북 관계 선도 조직"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이하 민추본)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남북한 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한반도 내 평화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희망적 분위기로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민추본은 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추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민추본은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6월 초 임진각에서 '정전협정 체결 70년 전쟁종식 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불교계의 실천 활동을 통해 평화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을 선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법회에 앞서 3~5월을 평화기원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행사도 진행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와 함께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평화 기원 타종, 연등회 문화마당 평화부스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전 70주년 평화기원 금강산 평화순례길 걷기도 열린다. 2021~22년 스님들의 금강산 순례길을 조명, 발굴하기 위한 금강산 평화순례길 연구사업 성과에 이어 순례길을 일부 걷는 시범행사로 진행된다. 걷기 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기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염원을 모아 금강산 평화순례길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고성 접경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부대사업도 열린다.

태효 스님은 "평화기원 대법회를 통해 종단의 평화 기조를 전달하고 조계종 37대 집행부, 민추본의 2023년 대북사업과 평화활동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불교계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이 담긴 평화의 메시지를


민추본 본부장 태효 스님

통해, 올해를 평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원사업인 문화재 복원에도 힘쓴다.

남북불교 교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6주년을 기념하는 e-book 사진전이 10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대화와 교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불교 교류의 필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book 사진전은 언택트 형태로 진행된다. 한정된 공간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에서 탈피, 온라인을 이용한 폭넓은 관람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산 및 금강산 사찰의 사진뿐 아니라 금강산 신계사 복원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e-book 사진전은 조계종과 민추본, 그리고 평화통일 도량 홈페이지에서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북한 지역 일제강점기 8대 본산 관련 문헌조사에도 착수한다.

해방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는 총 9개 본산에 400여 개 말사, 1600여 명의 스님과 500만 불교도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의 사찰 대부분은 전쟁으로 파괴돼 현재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문헌상 이름으로만 존재한 상태다.

이에 민추본은 보현사(묘향산), 법흥사(평남), 패엽사(구월산), 성불사(정방산), 석왕사(강원도 고산) 등의 현존 사찰과 영명사(평양), 유점사(금강산), 귀조사(함흥) 등의 소실 사찰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북한 내 8개 본사와 관련한 자료 취합 및 일제강점기 지도와 구글 위성지도를 통해 소실 이전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 등을 파악해 향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태효 스님은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 시기와 미래 통일에 대비해 먼저 북한 내 8대 본산을 중심으로 현시점에서 취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 복원이 가능한 시점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문화재 보수·복원 기술 전수에도 힘쓴다. 북한 전역에 흩어진 불교 문화재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 기술 지도를 통해 북한의 문화재 보수 및 복원 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북한 문화재 복원 사업에 앞서 북한 내 보존이 시급한 불교 문화재를 중심으로 보존처리와 복원 기술 전수를 겸한 교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차로 탑과 불상 등 야외 석조 구조물의 기술 전수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속, 목재, 종이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2002~2003년 실시한 '북한사찰 및 민족문화재 단청불사 협력사업' 선례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심 높은 민족문화유산과 연계해 사업의 현실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내부 조직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2021년부터 시작한 평화통일도량 조직사업 3년 차를 맞아, 지난해 다소 주춤했던 후원사찰 결연사업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남북불교 교류 대표회담은 지속적으로 북의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남북불교계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들 간의 만남을 통해 정체된 남북불교 교류의 물꼬를 트는 상징성 높은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불교계 관계 정상화 및 남북불교 교류사업 전반을 주요 의제로, 2023년 중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본 불교계 교류사업, 제주 4.3항쟁 75주기 평화순례, 평화통일교육사업, 남북 불교문화유산교류 연구위원회를 발족,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 및 일제 강제동원 역사 순례, 평화통일도량 3사(寺)순례 등이 연내 지속된다.

태효 스님은 "창립 이래 종단의 남북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민추본은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보다 새롭고 근본적으로 성찰,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종단의 남북관계를 선도하는 조직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엄중히 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불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호국위령대재' 조계종 행사로 확대"

이상철 신도회장, 군불총 창립 23주년 법회서 밝혀

호국원광사서 300여 명 동참
군포교 활성화 정진 다짐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봉행됐던 조계종 군종교구, 국군불교총신도회의 호국위령대재가 올해부터는 조계종 종단 호국행사로 확대된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이상철, 이하 군불총)는 2월 25일 서울 용산 호국 원광사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이날 이상철 군불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불교 진흥과 함께 6월 '호국위령대재'를 대표 호국행사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 회장은 "군불총은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를 통해 장병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시키고, 나아가 투철한 국가관과 호국의지를 고양시킴으로써 군의 정신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현역 학생 불자 및 자녀,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불자로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청년불자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6월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불교적 가치를 담은 호국보훈 행사로서 조계종단 차원에서 확대해 추진코자 한다. 군불총은 범종단적 군불교 동참과 신행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획실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부대중을 치하했다. 진우 스님은 "군에서 계를 받으면 평생의 불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군 불교는 한국불교의 희망"이라며 "신심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 우리는 이 가피를 믿고 군 불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욱 정진하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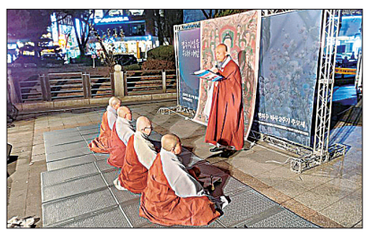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군불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교구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군불총을 중심으로 군불교의 발전을 위해 정진할 때 진정한 군불교의 성공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흥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능원 스님은 "군불자들이 보다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도록 육해공군의 군승법사들과 교구가 함께 다각도로 연구하고 뒷받침하겠다"면서 "오늘 우리의 결의와 소망이 우리의 정성어린 원력과 정진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회에는 신도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불자들에 대한 표창과 상장 등이 수여됐다.

또한 군불총은 병사와 신도회원 자녀 16명과 사관생도 15명 등 총 3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사노위,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기도

2월 27일, 서울 보신각 앞서 기도회
"국방부, 올바른 답 내놔야 할 것"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 된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난 변희수 하사의 2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2월 27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추모 기도회를 봉행했다. 변희수 하사는 2016년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다 대한민국 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이를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020년 강제 전역시켰다. 변 하사는 성별 정정 후 복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제 전역 취소 소송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군의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일,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 구분을 사적인 이유로 죽었다는 '일반사망'으로 정했고 이에 대해 올해 1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를 상대로 변 하사의 순직 심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이날 사노위 스님들은 염불을 외며 변 하사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시경 스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군인이라는 직업을 자랑스러워했던 고인은 성별 정정 후 복무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회적 약자들은 끊임없이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 사회에 함께 살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국방부가 올바른 답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은 평등하기에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한 시경 스님은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변희수 하사는 지금도 군에서 당당한 군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면서 "사노위는 성소수자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 발전 항상 응원"

이사장 성우 스님 이임식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불이임식이 열렸다.

동국대는 2월 28일 교내 정각원에서 '제41대 이사장 성우 스님 고불이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성우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이사장 이임을 부처님께 고하고 학교 발전을 기원했다. 성우 스님은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이곳에 계신 동국가족과 불교계의 지대한 사랑과 무한한 관심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윤성이 제19대 총장의 고불이임식도 봉행했다. 윤 총장은 "부처님의 가호묘지력으로 총장 재직 중 건학위원회가 출범해 삼보를 외호하고 정법을 호지하며 모교 발전에 진력을 다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신성민 기자



평택 보국사 주지 무상당 법현종사
진산식 및 대웅전 낙성법회

꽃피는 춘삼월에 열리는 아름다운 모임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일제의 간악한 마수에 시달리는 조국을 불보살님의 가피에 힘입어 도우려는 김대정월 창건주님의
'나라 돕는 절(輔國寺) 정신'을 이어받아 평택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주한미군의 귀의처가 되게 하려는
원력으로 정진하고 있는 즉문즉설 저잣거리 수행전법사 법현스님의 경기도 전통사찰 제26호 보국사 주지 진산과
대웅전 낙성법회에 제방의 스님, 전법사님들과 불자님 그리고 이웃종단,이웃종교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때 : 2023년 3월 18일(토) 오후 2시~4시
■ 곳 : 장등산 보국사 안마당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621(전화:031-666-8370)
■ 일 : 1)대웅전 낙성식 및 축하
2)무상법현(無相法顯)종사 주지 진산식 및 축하
3)운산당대행대종사 추모차례

무상당 법현종사 진산식 및 대웅전 낙성법회 준비위원회

